

한전, 신사업 해상풍력으로 재무구조 개선 나선다

전북 서남권~제주 풍력·수도권~해남 송전망 구축 등 진행 자회사와 SPC 설립 자금 출자...재무 위기 탈출구 마련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 등 신사업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부터 전남, 제주를 거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 건설사업'을 통한 수도권부터 해남을 잇는 송전망 구축 등 신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총 부채만 200조에 달하는 한전이 재무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0월 '한전 신안(KSA-1)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서해안 풍력 발전 사업

의 일환으로 전북 부안군 해역부터 신안군 임자도 해역, 제주도 한림읍 인근 해역을 잇는 풍력발전 설비를 조성하며, 총 13조 85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 중 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2029년까지 신안군 임자도 서쪽 30km 해상에 총 8조 6000억원을 들여 1.5GW 규모의 단지과 3GW 공동접속설비를 조성해 가장 큰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한전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신안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총 3796억원을 출자해 신안군 임자도 서쪽 30km 해상에 17MW를 발전하는 풍력

발전기 24기를 건립할 예정이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상 직접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한전수력원자력 등 6개 자회사 및 발전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자금을 출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 자금을 SPC를 통해 출자해야 하지만, 국내 발전업계를 주도하는 공기업인 만큼 SPC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전과 참여 기업들은 SPC 지분을 6:4로 분배할 예정이다.

한전은 총 사업비의 25%는 현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이용할 계획이다.

한전은 올해 SPC를 세워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오는 2026년까지 기본설계 및 주요 인허가를

받아 설계·조달·시공 계약을 마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7년에는 발전단지 건설 공사를 시작해 2032년 전후로 공사를 마무리 짓고 준공 후 25년간 운영 주체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6년까지 신재생 설비용량으로 108GW를 계획했다. 이중 풍력은 34GW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전이 신안 해상풍력 단지 건설에 힘을 쏟는 것은 연 평균 8.1%의 해상발전이 적합한 풍속과 풍질을 갖췄기 때문이다.

한전은 신안 뿐만 아니라 오는 2030년까지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에도 4조 6000억원을 들여 800M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 전후로는 제주도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100MW 규모의 제주 한림 해

상풍력 단지 준공 및 상업운전도 개시할 방침이다.

한전은 현재 전남 해안부터 서인철을 연결하는 해저송전망을 건설하는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2036년까지 송전망이 갖춰지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해 전력 과공급 상태인 전남의 발전 전력을 수요가 많은 수도권까지 송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 전북 등지에 들어설 해상풍력 단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사업들을 통해 한전은 국가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 및 건설·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켄텍, 일본 FCEE 학회서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연구결과 발표

황지현 교수 연구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황지현 교수 연구팀이 일본 FCEE 2024 학회에서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연계 안전성 평가/실증 및 안전기준 개발' 과제의 2차년도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연계 안전성 평가/실증 및 안전기준 개발' 과제는 대용량 액화수소 충전소의 안전성 검증, 설치·유지 관리 등의 국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기반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준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황 교수 연구팀은 해당 과제의 1년차에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핵심 설비 구축 기술 사례 분석' 및 '국내 액화수소 충전소 핵심 설비 구축 기술 사례 분석'을 맡았고, 2년차에는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공정 시스템 해석' 및 '국내 수소 충전소 구축 설계 및 국내 공정 시스템 설계 요구(안) 도출'을 담당했다.

황 교수는 학회 발표에서 "대용량 수소경제 시대가 도래한 이후, 액화수소가 수소 운반을 위한 최적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모빌리티 분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수소 충전소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다"며 액화수소 원천 기술이 탄소중립 수소경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FCEE 2024 학회에서 황지현(왼쪽) 교수가 학회 관계자와 Keynote Speaker 선정 인증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임을 설명했다.

황 교수는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수소 충전소 대비 상업 저장을 통한 안전성 확보, 압축기 대신 극저온 펌프를 사용함에 따른 소요 전력의 획기적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충전 속도와 부지면적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내 대용량 수소경제에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다"고 말했다.

이어 "액화수소 원천 기술을 글로벌 3사가 독점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 액화수소 관련 안전기준의 부재로 액화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및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과제에 참여 중인 기업들과 연계해 액화수소 원천기술 국산화 및 자체 안전 기준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력거래소, 상반기 24명 공개채용

2월 6일까지 지원 접수

전력거래소는 '2024년 상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신입직 22명, 전문경력직 2명 등 총 24명을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부 모집인원을 보면 신입직은 분야별로 사무직(상경) 4명, 기술직 18명(전기 13명, IT 5명)이다. 전문경력직은 노무사와 기상모델링 분야에

각각 1명씩 채용한다.

전력거래소는 정부의 청년채용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전년(11명) 대비 공개채용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24명으로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

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보훈대상자 5명, 이진지역(광주·전남) 인재 4명, 장애인 1명,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력거래소 공개채용은 서류·필기전형과 1~2차 면접으로 이뤄지며, 입사 지원자는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까지 전력거래소 채용홈페이지(kpx.saramin.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전력거래소 채용 담당자는 "최근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대폭 강조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높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며 "이를 통해 기관 역량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청년농 농지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오는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선매입한 뒤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장기 임차해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

인이며,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전국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대상 농지는 1000㎡(약 302평)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이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 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의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사이트(www.f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세열골

"정보보호 강화... 디지털 안심국가 완성할 것"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8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원에서 제 7대 이상중(사진) 선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선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실장,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구미대 부설기관으로 개설된 사이버보안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사이버보안 관련 종합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만큼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국민의 정보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디지털 안전 사

회 구현을 위해 KISA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설정 ▲정보보호·디지털 전문 기관으로서 KISA 역량 강화 ▲경영을 통해 견전한 조직 발전의 계획을 제시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격변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KISA가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디지털 전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